



사막의 장미... 현대건설의 기술력으로 피어나다

National Museum of Qatar

**GREAT
COMPANY**
PEOPLE·CULTURE·VALUE

1 카타르 국립 박물관 전경.
 2 3월 27일(현지시간 기준) 열린 개관식 모습.
 3 카타르 국왕 '타미 빈 하미드 알타니'가 축사를 하고 있다.

New National Museum of Qatar opens

Hyundai E&C held an opening ceremony for the National Museum of Qatar in the country's capital Doha on March 27 in local time.

Korea's primary builder successfully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46,596-square-meter museum of five floors above ground and one basement level. With excellent technological prowess and rich construction experience, the builder was awarded the National Museum of Qatar project valued at 434 million dollars, or approximately 470 billion won, to create the stunning new architectural highlight in September 2011.

The Qatari government has put a lot of efforts into this cultural project. Visitors can encounter an extensive collection of Arabic and Qatari cultural heritage organized in three chapters ranging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Qatar. The museum was designed by the world's renowned architect Jean Nouvel.

The new museum was inspired by "desert rose," also known as crystal clusters which form in the desert. It is characterized by a sprawling array and intersections of curved discs. To create the shape of roses, Hyundai E&C made about 76,000 panels of fiber reinforced concrete (FRC) fit together in a jigsaw of 316 discs in different sizes. In addition, the builder utilized the 3D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method throughout the entire construction process,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global construction industry.

21세기 걸작 '카타르 국립박물관' 공식 개관 세계 최초로 건축 전 과정에 3D BIM 기법 도입... 비정형 건축물 완벽 시공

현대건설이 3월 27일(현지시간 기준) 카타르 수도 도하 중심부 지역에서 금세기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카타르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Qatar)'의 개관식을 가졌다.

현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카타르 박물관청 셰이카 알 마야사 빈트 하마드 빈 알 사니 청장을 비롯해 카타르 주요 정부 인사와 현대건설 카타르 국립박물관 이상복 현장소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카타르 국립박물관 프로젝트는 카타르 옛 왕궁의 남쪽과 북쪽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4만6596㎡ 규모의 박물관을 짓는 공사다. 현대건설은 우수한 기술력과 공사 실적 등을 내세워 2011년 9월 4억3400만 달러(약 4700억원)의 이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카타르 국립박물관은 카타르 정부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문화 프로젝트로, 고대에서부터 근현대까지 아랍 및 카타르의 문화유산과 폭넓은 컬렉션을 3개 파트로 나눠 선보인다. 설계는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이 맡았다.

사막의 장미(Desert Rose, 장미 모양의 사막 모래 덩어리)를 모티브한 건물은 원형 패널이 뒤섞이고 맞물린 독특한 형태를 자랑한다. 현대건설은 장미 모양의 구현을 위해 7만6000여장의 섬유 보강 콘크리트(FRC: Fiber Reinforced Concrete)를 조합해 각각 크기가 다른 316장의 원형 패널(Disk)을 일일이 붙였다. 특히 꽃잎(Disk) 하나를 완성하는 데 4개월 이상 소요될 만큼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또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세계 최초로 건축의 전 과정에 3D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으로 진행되는 최신 공사 관리 기법을 도입했다. 이 첨단 기법 적용으로 가상의 공사 환경에서 도면상의 오류나 설계상 간섭·누락 요소 등을 사전에 해결하는 것은 물론 실제 시공 과정에서의 분쟁·재시공 등을 방지할 수 있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카타르를 넘어 세계적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카타르 국립박물관을 현대건설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완성시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이 든다"며 "발주처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향후 카타르 지역 내 사회 기반시설, 대규모 상업시설, 의료·교육 인프라 등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Leaders meeting and management seminar in 2019

About 220 partners attend the meeting during Mar. 8 and 9



Our company is taking the lead in reinforcing win-win growth with our partner companies.

Hyundai E&C held the H-Leaders regular general meeting and management seminar in Haevichi Hotel and Resort Jeju, Jeju Island, for two days from March 8. This year marks

the 8th anniversary of the H-Leaders meeting and management seminar. It was attended by about 220 participants including Hyundai E&C Vice Chairman Chung Jin-haeng, CEO Park Dong-wook, and CEOs from 167 procurement and subcontracting partners. The meeting, designed to



strengthen close cooperation with our partner companies, started with a welcome reception, followed by a regular general meeting, a prize-giving ceremony, a management seminar and a dinner party.

In his opening speech, Vice Chairman Chung asked for the

participants to cooperate in developing Hyundai E&C into the country's most leading company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economy, saying that what the builder has achieved so far amid difficult business conditions is attributable to efforts of its partner companies.

2019년 H 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 개최

3월 8~9일, 167개 외주/구매 협력사 대표 등 220여 명 참석

우리 회사가 협력사와 상생경영을 펼치며 동반성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회사는 3월 8일, 9일 양일간 제주도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2019년 H 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167개 외주/구매 협력사 대표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올해 '2019년 H 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에는 우리 회사 정진행 부회장, 박동욱 사장을 비롯해 각 사업본부장이 참석해 협력사 대표이사 및 유대감을 돈독히 했다.

협력사와 유기적인 상호협력 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Welcome Reception ▶H Leaders 정기총회 ▶우수협력업체 포상 ▶경영자 세미나 ▶만찬 등의 순으로 실시됐다.

우리 회사는 '우수 협력사 포상'에서 대자기업(㈜)을 최우수 협력사로, (주)순안, 두송건설(주) 등 11개 기업을 분과별 우수 협력사로 선정했다. 또한 올해 처음 도입한 '기여도 우수' 협력사에는 (주)종합건축사무소건원, '품질우수' 협력사에는 삼호건설(주)을 선발했다.

이밖에 관악산업(주), 대아이앤씨(주)를 수행 능력 최상위 협력사인 'H Prime Leaders'로 선정해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 회사는 우수 협력사에 계약이행보조금 50% 감면, 입찰추천 평가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인사말을 통해 정진행 부회장은 "모진 풍파 속에서도 현대건설이 지금까지 당당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한 협력사 덕분"이라고 운을 뗀 후 "앞으로도 현대건설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동욱 사장은 "올해 현대건설의 경영 목표인 '모든 이해관계자의 부가가치 창출'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양측이 한배를 탄 한 팀임을 잊지 말고 원가 절감 아이디어 개발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또 "이 자리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영자 세미나 시간에는 우리 회사 임직원이 강연자로 나서 '2019년 구매 정책' '건설의 미래를 엿보다(Smart Construction)' '2019년 현대건설 기술 공모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HDEC R&D센터-3M Construction Tech Fair 개최 ... 공동 연구 개발 성과 가시화

서울 계동 사옥 본관 1층 로비에 서 3월 21일, 22일 양일간 'HDEC R&D센터-3M Construction Tech Fair'가 열렸다.

우리 회사와 3M이 공동 개최한 이번 전시는 양사의 공동 연구 아 이템을 비롯해 가까운 미래에 적용 가능한 3M의 최신 제품과 솔루션

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전시는 ▶EPC ▶에너지 저감 ▶안전 등의 섹션으로 나뉘어 임직원에게 공개됐다. 특히 양사가 공동 연구한 바다 충격음 저감소재, 기밀/방수 테이프, 글라스버블 등 기술 개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또한 ▶디자인 솔루션

▶건물 에너지 저감 솔루션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진행해 임직원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22일 진행된 VIP 투어에는 우리 회사 정진행 부회장, 박동욱 사장과 3M의 Tamie Minami 아시아 부문 사장, Amit Laroya 한국 지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항만 시설 공사 수주 이어져

우리 회사가 최근 항만시설 분야에서 잇단 수주에 성공했다.

우리 회사는 3월 21일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 재개발사업(1단계)' 공사를 따냈다. 한 상드림아일랜드가 발주한 이 공사는 바다에서 퍼낸 준설토를 매립·조성된 부지를 활용해 인천국제공항 등과 연계한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우리 회사는 330만㎡에 달하는 부지 조성공

사와 한상 IC 신철공사를 맡았다. 공사 금액은 833억원 규모다.

이어 같은 날 우리 회사는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2280억원(당사분 730억원) 규모의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를 수주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84번지 북측 해상에 동측 호안(3898m), 서측 호안(2384m), 분리 호안(2369m) 등을 짓는 이 공사는 2022년 9월 준공 예정이다.

2019 현대건설 기술공모전

우리 회사가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에 발굴해 상생협력은 물론 미래 건설기술 발전 기여에 앞장선다.

우리 회사는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 현대건설 기술공모전' 응모작을 모집 중이다. 응모 분야는 ▶원가 절감형 기술 ▶건설 특화/차별화 기술 ▶건설 적용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등 건설 현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현대건설 홈페이지(www.hdec.co.kr)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5월 서류심사 ▶6월 발표심사를 거쳐 7월께 수상작을 발표한다. 선정작들에는 11월 초 개최되는 '현대건설 기술컨퍼런스'에서 발표 및 전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그룹사 뉴스

현대자동차그룹 제8회 협력사 채용박람회 개최

2019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채용박람회



현대자동차그룹이 3월 2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COEX)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오원석 현대·기아자동차 협력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각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9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채용박람회' 개막 행사를 했다.

이번 협력사 채용박람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3월 28일), 대구(4월 8일), 창원(4월 16일), 울산(4월 30일)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현장부서 소식

UAE 원전공사 현장 무재해 5000만 시간 달성



UAE 원전공사 현장이 최근 해외 원전 최초로 무재해 5000만 시간을 달성했다.

무재해 달성 기간은 2017년 8월 22일부터 2019년 2월 25일까지 총 551일에 달한다. 현장은 고유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HSE 워크숍, DNA 콘테스트, Committee 점검, HSE Performance Award 등 다양한 HSE 표준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현장 관계자는 "임직원 및 근로자들이 안전 의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고유의 안전 시스템을 전파해 온 결과 무재해 5000만 시간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해외 원전 최초로 달성한 기록인 만큼 우리 현장이 'Global Best HSE Practice'로 거듭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읍~한림 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 개통



동읍~한림 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이 3월 5일 전면 개통했다.

이 공사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대산면 북부리를 연결하는 2차선 도로를 왕복 4차로로 확·포장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 2247억원이 투입됐다. 우리 회사는 ▶도로 확장 및 연장(12.03km) ▶교량 9개소(1102m) 신축 ▶교차로 6개소 등을 맡았다. 준공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현장 관계자는 "2004년 12월 착공 후 171개월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불철주야 달려온 임직원의 노력 덕분에 무사히 준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통으로 의창구 대산 지역의 접근성과 창원 도심지의 교통정체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 spring beauty in full bloom

Mar 22

As spring showers start to fall, many people are full of anticipation for the weather to warm up so that spring's first flowers can start blooming.

Reports of blooming cherry blossoms in Jeju Island and Busan started popping up on social media last weekend, prompting many to start looking for the best spots around the country to catch the picture-perfect scene.

Want to be the first of your friends to post photos of flowers on Instagram? Don't wait until Seoul begins blooming. The warmer provinces in the south, Gyeongsang and Jeolla, will welcome flowers earlier, making them hot spots for weekend flower-spotting trip. The first cherry blossoms are scheduled to start blooming over the weekend and early next week in those southern cities while people in Seoul will have to wait until early April.

Heading south

Although many instantly think of cherry blossoms in the spring, there are other beautiful flowers that go into full bloom a bit earlier. At the moment,

sansuyu, the cornelian cherry flower, are painting some towns south of the country yellow.

Gurye County in South Jeolla is known for having large groupings of these flowers at the foot of Mount Jiri. The town holds the annual Gurye *Sansuyu* Festival, which offers not only a flowery scene, but also tea, alcoholic beverages and drinks made with the flower and its fruit to better entertain the visitors. This year's edition will end Sunday.

North Gyeongsang's Uiseong County also has many *sansuyu* flowers throughout the region. Its Uiseong *Sansuyu* Flower Festival will run until March 31. The agriculture-heavy area is filled with green crops fields, making for an impressive contrast of colors.

Flowers around the capital city

Seokchon Lake has become a must-see cherry blossom spot in Seoul and is slowly creeping up behind Yeouido, traditionally known as the city's best and most popular spot to catch the blooming trees.

In recent years, the trail around the lake has established itself, especially among those who live

in the eastern part of the city, as the walk is unhindered by passing cars. Flowers are expected to be in full bloom beginning on April 5, when the festival begins. The Yeongdeungpo Yeouido Spring Flower Festival is set to begin the same day.

In Incheon, there is a spot known for its azaleas. Mount Goryeo in Ganghwa County will be covered in pink for hikers to enjoy as they make their way up to the top. A festival will be held at the mountain from April 13 to 21, offering a variety of food, including pancakes decorated with pink petals.

Yangpyeong County in Gyeonggi is adding a delicious twist at their annual Yangpyeong *Sansuyu* and Hanwoo Festival by offering flowers and meat together for two days from April 6 to attract hungry souls.

Everland, a theme park in Gyeonggi, will present all types of tulips until April 28, making it a hot spot for the spring season. The park will continue its flower events, until summer approaches, with its own cherry blossom festival from April 5 to 7, and then a rose festival from May 17 to June 16.

By KOREA JOONGANG DAILY

BOK chief agrees with IMF on monetary policy

Mar 26

Bank of Korea (BOK) Governor Lee Ju-yeol said the central bank will adopt an accommodative monetary policy, which was recommended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two weeks ago, to help the Korean economy achieve stable growth.

The central bank governor's comment came on the heel of the Finance Ministry mulling a supplementary budget also proposed by the IMF to help the Korean economy reach its 2.6 percent to 2.7

percent growth forecast for this year.

"We will maintain an accommodative monetary policy that would back up our economy's stable growth while managing [monetary policy] in closely evaluating all aspects of newly acquired indices, including inflation and financial market stability," Lee told lawmakers on the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at the National Assembly on Monday.

He said the economy continues to meet its potential growth rate, especially with consumption on the rise and sluggishness in exports and

facilities investment improving.

Yet he noted increasing uncertainties coming from external factors including U.S. and China trade negotiation and the Britain's Brexit.

"The global economic growth deceleration will be heavily influenced by the ongoing trade negoti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s well as the Brexit progress," Lee said.

The governor said now is the most appropriate time to tap into greater fiscal spending.

By KOREA JOONGANG DAILY

2019 Red Dot Awards: another triple triumph for Kia design

Kia has triumphed again in the Red Dot Awards, securing three prestigious awards for design. Following the launch of the new third-generation Kia Ceed, now on-sale across Europe, the three new body styles within the range have each received a prestigious Red Dot Award for design.

This triple triumph in the world-renowned design competition represents the second consecutive year in which Kia has picked up a hat-trick of Red Dot design awards, following similar success in 2018. The



manufacturer also took home three iF Design awards earlier in 2019.

The achievement underscores the Korean manufacturer's reputation for first-class design, which has been shaped by Peter Schreyer, President of Design and Chief Design Officer for Kia Motors.

Hyundai showcases creative future vehicle space at Milan design week

Hyundai Motor Company believes that good design is about creating the right kind of connections at the right time. Designing quality connections - with each other, with materials, with spaces, or with time itself - equates to designing a personalized experience. In light of this, Hyundai is pleased to announce its participation at this year's Milan Design Week (MDW) between 9-14 April at Opificio 31.

Under the banner "STYLE SET FREE," the company will highlight its innovative vision for how vehi-



cles will become individual living spaces.

The company will also be introducing Smart Docent, an audio guide for the exhibition, for the first time in Milan. Smart Docent will also feature at future Hyundai events.

10 Minute Korean Lessons

On a mountain

Even if you have never been hiking, it is definitely worth giving it a go while you are in Korea. There are so many mountains in Korea, ranging from very short and easy hikes to all day hikes with a number of trails of varying difficulty, that only a handful could be labeled on this map. If you are a novice hiker, we recommend starting with a few of the shorter mountains before tackling the taller ones.



Related phrases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How much further until I get to the top?
Jawng-sahng-ggah-jee awl-mah-nah nah-mah-ssaw-yo?

케이블카 어디서 타요?

Where do I take the cable car?
Kay-ee-beul-kah aw-dee-saw tah-yo?



Hiking vocabulary



The content above is from 'Korean Phrasebook for Travelers' by Talk To Me In Korean, a company that provides free Korean language learning materials. Check out TalkToMeInKorean.com for further lessons.



사회공헌활동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22기 미얀마 지역 봉사단원

60명이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11박12일의 연차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교육, 노력 봉사 및 문화 교류까지 미얀마에서 확실한 행복을 찾은 해피무브들의 생생한 봉사기를 전한다. 글·사진=해피무브 22기 현대건설 홍보단 권순우(중앙대), 임수연(한양대), 최민주(한양대) / 정리=강은비



1 46번 학교(초등학교)에 그려진 벽화, 2 5일차에 진행된 교육봉사 중 직접 꾸민 하회탈을 들고 있는 1번 학교 학생들, 3 광명하게 정리한 학교 복도에서 찍은 해피무브 열풍대, 4 아이들이 사용할 책걸상을 직접 만들고 있는 모습, 5 벽화를 그리기 전 하얀색 페인트로 밑 작업 중인 해피무브, 6 미얀마와 한국 국기를 들고 만들기 작업을 자랑하고 있는 46번 학교 학생들, 7 현지에서 한국 전통무용을 열정적으로 추고 있는 해피무브들, 8 해피무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학생들, 9 현대건설 직원과 해피무브들이 지역 아이들과 2인 1조로 짝을 이뤄 진행한 마을 환경정화 활동, 10 미얀마 사회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현대건설 미얀마 발전소의 이은석 현장소장, 11 길거리 쓰레기를 줍고 있는 미얀마 타케타 지역의 학생과 해피무브, 12 현대건설 봉사팀을 응원한 해피무브들.

미얀마에서 확실한 행복을 찾아서 돌아온 글로벌 인재, 해피무브 22기!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이하 '해피무브')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연간 1000여 명의 봉사단원을 선발해 해외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올해의 첫 해피무브 22기는 인도·우즈베키스탄·중국·미얀마로 파견돼 교육·환경·지역 봉사활동을 펼쳤다. 그중 현대건설 송·변전 현장이 있는 '미얀마'의 타케타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돌아온 글로벌 인재 해피무브들의 가슴 깊은 봉사활동 후기를 소개한다.

“우리의 땀방울이 더어져 새 학교가 더욱 빛나는 것 같아요!”

한국은 매서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2월 11일, 우리 해피무브 60명은 여름의 나라 미얀마에 도착했다. 피부에 와닿는 높은 온도와 습도, 한국과는 사뭇 다른 풍경에 마음이 설렘. 빛이 없는 캄캄한 도로를 한참 달려 도착한 호텔에서는 2주간의 봉사활동이 설레서인지 다들 선뜻 잠이 들지 못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고 다음 날 봉사활동에 차질 없이 임하기 위해 억지로 눈을 붙였다.

여독이 풀리지 않아 피곤했지만 모기 소리에 눈이 절로 떠졌다. 우리의 주된 임무인 미얀마 발전소 봉사활동은 7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세로의 학교 외관과 교실을 보수하고 벽화를 그려야 해 일정이 빽빽했다.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앞서 페인트, 젓소, 그라인더 작업 등 생소한 명칭과 작업 설명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만만하게 됐던 커튼 달기 작업도 사이즈 측정부터 철사 절단까지 절대 쉽지 않은 활동임을 느낄 수 있었다. 첫날은 적응을 위한 맛보기 활동이었지만 작업은 녹록지 않았다. 하하호호 이야기꽃을 피웠던 시작과는 다르게 더운 날씨에 금방 피로감을 느꼈다. 지쳐서 쉬는 단원들이 늘어나자 누군가 '파이팅'을 외쳤다. 아직도 귀가에 생생한 이 짧은 외침은 12일간 매일처럼 현장에 울려 퍼졌다.

3~4일이 지나자 점차 손에 익은 그라인더 및 페인트 작업은 우리를 반전문자로 만들었다. 첫날과는 다르게 여유가 생기자 함께 노래를 부르며 가볍게 리듬을 타기도 했다. 마지막 노력봉사 활동지인 유치원에서는 2~3일 걸리던 작업을 하루 만에 마칠 수 있었다. 우리의 뜨거운 땀방울이 모여 완성된 모든 교실과 벽화들은 우월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 그 자체였다.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는 아이들 덕분에 우리가 더 행복했어요”

봉사활동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라면 이틀간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아닐까. 교실에서 만난 아이들의 빛나는 눈빛이 아직도 선하다. 낮에는 노력봉사를, 저녁에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교육봉사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준비하느라 피곤했지만 막상 아이들이 밝게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자 그동안의 피로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처음에는 우리를 낯설어하며 피하던 어린 친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먼저 다가와서 장난을 걸고 '피쳐피쳐'를 외치며 우리를 부를 때는 날라갈 듯 기뻐했다.

한국에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한 교육봉사는 말 그대로 대성공이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던 어찌나 걱정했는 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열심히 따라와 준 아이들과 각 팀마다 봉역을 담당해 주는 현지 친구들이 있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다. 눈만 마주쳐도 웃음꽃이 피던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라 봉사활동 중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봉사 기간이 짧아도 했지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서 그런지 이들이 순식간에 가버려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 무엇보다 먼저 다가와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 비록 짧은 이틀이었지만 우리가 준비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작은 이들이 즐거워하던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서 되레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

“주민들과 함께한 아름다운 마무리, 이것이 끝은 아니겠지요”

고대하고 고대했던 대망의 마지막 일정, 헌정식의 날이 밝았다. 오전에는 마을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그동안 준비했던 헌정식으로 봉사활동의 방점을 찍었다. 마을 환경정화 활동은 현지 학생과 2인 1조를 이뤄 함께 거리를 청소하는 활동으로 현대건설 미얀마 현장 직원들도 함께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기도 했지만 우리가 청소한 거리를 돌아보면 너무나 깨끗해 설명할 형용사도 없었다. 누가 더 쓰레기를 많이 주웠는지 대결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 힘을 얻어 더 열심히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는 헌정식 행사는 미얀마 사회복지부 장관, 타케타 지역구 의장과 미얀마 한국 대사관 및 현대건설 미얀마 발전소 현장 소장 등 비롯한 400여 명의 현지 주민이 참석해 축제의 자리를 빛냈다. 헌정식의 첫 순서는 해피무브 단원들이 미얀마에 도착해서 활동한 봉사에 대한 소개였다. 세로의 학교에서 진행한 그늘막, 책걸상, 외부 보수 등의 활동이 하나하나 소개될 때마다 주민들의 환호성과 감탄사가 쏟아져 그동안의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 피날레는 한국에서부터 준비하고 봉사활동 틈틈이 연습한 문화공연 시간이다.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보여주지 위해 국악, 태권무, 부채춤, 그리고 K-POP 무대를 준비했다. 미얀마에 도착해서도 나가지 않는 몇몇의 몸치·박치 해피무브들이 실수를 하면 어찌나 다들 마음 졸이며 각각의 무대를 지켜봤다. 결과는 대성공! 열정을 다해 배를 갈아 연습한 보람이 있었다. 모든 공연이 끝나자 우리의 무대를 지켜본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와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려 주는 모습에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글로벌 인재로 한걸음 더 나아가 수 있는 기회를 준 해피무브 봉사활동은 우리 60명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경험과 시간이었다. 이 기회가 아니었다면 가볼 일이 있을지 싶은 '미얀마'의 타케타 지역에서 현지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며 정을 쌓고, 봉사활동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 해피무브들 인생에 있어 큰 행운이 아닐까. 열정 넘치던 12일이 우리는 물론 현지 주민과 아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과 행복으로 오래 남아 있기를 바란다.

Interview

대학생 해피무브 성규동 (A팀)

“해피무브 활동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해피무브들과 2주동안 동거동락하며 함께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쉽게 경험해 볼 수 없는 현지인과 함께 한 시간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학생 해피무브 임지윤 (B팀)

“활동을 시작할 때 현지에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즐거움과 팀으로서 팀원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 걱정되는 감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봉사를 하며 부족한 지를 도와준 팀원들에게 많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해피무브 B팀! 12일을 함께 하며 봉사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대학생 해피무브 김자연 (C팀)

“미얀마의 뜨거운 햇볕에 얼굴은 까맣게 됐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환해졌을 것입니다. 봉사는 가진 것을 일반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행복을 느끼고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현대건설 송변전 사업실 이지원 대리 (멘토)

“대학생 단원들이 스스로없이 다가와줘서 고맙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멘토의 입장에서 무엇을 알려줄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는데, 오히려 단원들의 책임감과 열정을 보며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단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코피은 정준호 간사 (Staff)

“미얀마의 더위보다 뜨거웠던 단원들의 사랑과 열정이 미얀마에 널리 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활동을 준비하며 어려움이 많았지만 모두 함께했기에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열정을 개인적으로도 발전하는 시간이었고, 해피무브의 열기로 가장 '핫'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제주님 바대(감사합니다).”



The 22nd Happy Move goes to Myanmar

The Happy Move Global Youth Volunteers Corps, or Happy Movers, are considered one of Hyundai Motor Group's most representativ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Korea's biggest carmaker by sales selects about 1,000 volunteers each year to conduct a variety of volunteer activities around the globe. In this edition, Hyundai E&C Today introduces candid stories about the 22nd Happy Move Global Youth Volunteers Corps which visited the Thaketa region in Myanmar. Currently, Hyundai E&C, the Hyundai Motor Group's construction affiliate, is working on a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project in the region. About 60 Happy Move volunteers arrived at Myanmar on February 11. Their first mission was to repair walls and classrooms of three local schools and paint murals on a tight schedule of one week. Even though they struggled with sweating and fatigue due to hot weather, they did their best while cheering up each other. Since a few days of their organized efforts made them "almost" experts in grinding and painting, they could finish the refurbishment of a kindergarten in only one day at the end of the week. Most of the Happy Movers chose the two-day educational programs for local children as the most memorable

experience during the volunteering period. They said that their physical tiredness melted away when they saw the children beam with a bright and happy smile. The educational programs ended with a huge success. Local interpreters as well as strong enthusiasm of the children with sparkling eyes helped the Happy Movers overcome the language barrier. The volunteers were all the more happy to receive genuine reactions from the local children participating in the events, they said. The volunteering CSR activity culminated in the dedication ceremony attended by officials from the Myanmar's government, the local community, the Korean embassy in Myanmar and the substation construction project conducted by Hyundai E&C, and about 400 local residents. During the ceremony, the volunteers performed Korean traditional music, taekwondo dance, Korean fan dance, and K-pop to showcase various aspects of Korean culture. Their performances were well received with enthusiastic cheers from the audience. All of 60 participants said that the Happy Move Global Youth Volunteers Corps gave them an invaluable experience and an opportunity to grow into global talents.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건설공사 현장

서울에서 순천까지 KTX를 타고 약 3시간, 순천역에서 차량으로 1시간가량 더 내달려야 다다를 수 있는 곳. 푸른 산, 맑은 물이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이곳은 우리 회사가 시공 중인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건설공사 현장이다. 지난 2월 19일 관통식을 진행한 현장은 2020년 7월 27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박현희



Hyundai E&C constructs new waterway in southern part of Korea

A special ceremony was held in the Juam Lake in Suncheon-si, Jeollanam-do, on February 19 to celebrate the penetration of a new waterway tunnel being constructed by Hyundai E&C as part of the Juam Dam waterway conduction tunnel stabilization project. The event was attended by about 50 officials from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nd Hyundai E&C.

The project is aimed at building a new waterway tunnel to resolve the structural instability of the existing waterway tunnel and to stabilize the water supply for the surrounding region. The waterway tunnel in the Juam Dam is considered an important source of supplying water not only to about 700,000 residents living in the eastern region of the Jeollanam-do for living and irrigation but also to the Yeos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for industrial use.

The Juam Dam waterway conduction tunnel stabilization project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an 11.2-kilometer waterway tunnel, an intake tower, a vertical shaft and a temporary coffering. As of March 29, 65 percent of the construction was completed, and the project is slated to be finished in July 2020.

The key of the project was to excavate the 11.2-kilometer-long waterway tunnel. Korea's primary builder chose the tunnel boring machine (TBM) method to ensure stable excavation even in

weak ground and minimize safety-related accidents as the new tunnel was constructed only a few meters away from the existing one.

The construction site allowed two tunnel boring machines to work from both sides of inlet and outlet sections. However, the tunnel construction was considerably slower than anticipated in 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 To speed up the excavation work, the construction site analyzed the ground conditions in collaboration with the headquarters' R&D Center and came up with a criteria for improvement best suited for the TBM construction. As a result, the TBMs could achieve a drilling rate of 340 meters per month, leading to cutting down on construction schedule and costs.

Safety control was carefully managed at the construction site where major construction works were conducted inside the tunnel. They developed a real-time monitoring system and introduced a fingerprint verifications system for entrance to the construction site in order to manage safety in a more effective way.

Hyundai E&C successfully completed the penetration of the new waterway tunnel in the Juam Dam through the TBM method. This "new waterway" is expected to supply 540,000 tons of water per day on average to the every corner of the eastern region of the southern part of the country.



Technology
본사와 협업하며 TBM 시공 최적화 이뤄내
Optimize TBM construction in cooperation with head office

Ownership
정기 준공을 위해 2교대로 근무하며 공기 준수
Run construction site around the clock to complete construction on schedule

Pride
역수국가산업단지 등 전남 동부권에 안정적인 물 공급
Supply water to eastern region of Jeollanam-do on a stable basis

총 연장 11.2km... 전남 동부권의 '새 물길'을 내다

11.2km 도수터널 관통 성공!

지난 2월 19일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주암호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우리 회사가 시공 중인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건설공사'의 터널 관통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 이날 행사에는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 박병돈 금영-섬관역부본 이사를 비롯해 우리 회사 토목사업본부 정운태 상무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터널 관통을 축하했다.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건설공사는 기존 도수터널의 구조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새로운 도수터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1990년 타 건설사가 시공한 기존 도수터널은 풍수 후 두 차례 낙반(落盤)이 발생해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주암댐 도수터널은 전남 동부권 지역 약 70만 명의 생활 및 관개용수와 국내 석유화학산업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에 공급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중요한 수원시설이다. K-water 박병돈 이사는 이날 행사에서 "주암댐 도수터널 붕괴로 인한 예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중요 프로젝트인 만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선도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공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회사는 발주처의 기대에 발맞춰 2015년 11월 공사에 착수한 이래 TBM(Tunnel Boring Machine) 두 대를 이용해 양방향 터널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건설공사는 기존 도수터널에서 320~515m 가량 떨어진 곳에 11.2km 장대터널(도수터널)과 취수탑, 수직갱(Vertical Shaft, 수직 통로), 매립식 가물막이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우리 회사는 2015년 11월 주간사(60%)로서 금영산업(20%)·호반건설(10%)·삼호중공업건설

(10%)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단기로 수주했다. 일반적인 도수터널 공사는 가물막이 시공 후 수직갱을 내야만 터널 공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별도의 수직갱을 하나 더 설치해 가물막이 공사와 터널 공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시공안을 제시하며 발주처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장은 ▶2015년 11월~2016년 5월 가설사부소 및 수직갱 부지 조성공사(Fast Track) ▶6~12월 수직갱 굴착 공사 ▶2017년 1~3월 TBM 장비 반입을 위한 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 터널 공사 ▶2017년 4월~2019년 1월 TBM 굴진 및 가물막이·취수탑 공사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TBM 장비 해체와 라이닝 폼 제작·설치, 취수탑 구조물 작업에 현장이다. 3월 29일 기준 공진률은 65%로, 2020년 7월 27일 준공 예정이다.

TBM에 최적화된 보강 공사 기준 만들어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건설공사의 핵심은 총연장 11.2km에 달하는 터널을 굴착하는 일이었다. 우리 회사는 기존 도수터널에서 몇백m 떨어진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약한 지반에서도 안정적인 굴착이 가능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적은 TBM 공법을 택했다. TBM은 직경 원통의 커터헤드(Cutterhead)가 암반을 암쇄하며 굴진하는 첨단 공사 기법이다. 일반적인 터널 공법인 NATM(폭약 발파식)보다 굴진 속도가 빠르고 굴착 면이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리가 어렵고 고장 등으로 장비 가동률이 떨어질 경우에는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 있다.

현장은 유입부와 유출부에 한 대씩 총 두 대의 TBM 기기를 양방향에서 가동시켰다. 하지만 공사 초기에는 공진 계

획(315m/월)만큼 작업 속도가 나지 않았다. 국내에는 아직 TBM 공법에 대한 공사 기준이 없어 설계사가 NATM 공법을 토대로 보강 설계를 한 것. 발파 공사에 맞춰 록볼트(Rock Bolt, 천장 붕괴 방지용 철제 볼트), 샷크리트(Shotcrete, 압축 공기로 시공면에 뿌는 콘크리트) 등 보강 작업을 과하게 한 것이 느린 작업(250m/월)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현장은 굴진 속도 향상을 위해 본사 R&D센터와 지반 상태를 분석하고, TBM에 최적화된 보강 공사 기준을 만들었다. 그 덕분에 현장은 약 36% 이상의 굴진 속도 향상(340m/월)을 이뤄냈으며,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안전관리 총력... '최우수 현장'으로 선정되기도

숨 가쁘게 돌아가는 공진에도 현장은 밖으로는 민원관리, 안으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현장이 위치한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과 승주읍은 지하수를 퍼올려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도수터널이 지나가게 되면 지하수 양이 감소해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게 된다. 더욱이 30년 전 완공된 기존 도수터널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착공 전부터 '공사 반대 집회'가 다수 계획돼 있었다. 현장 직원들은 마을에 지하수가 감소했다는 말을 듣는 즉시 모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수를 지급할 정도로 민원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지하수 관정(Groundwater well) 4개소를 개발해 집마다 배관을 연결해 주었다. 지하수 고갈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주공종이 터널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장의 특성상 안전관리 역시 세심하게 이뤄졌다. 현장은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문을 통해 현장 출입을 관리했다. 또 터널 내 가스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이상 발생 시 경기가 울리도록 했다. 그 결과 2017년 발주처에서 개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경진대회'에서 사장상(우수상)을 수상하고, 이듬해에는 최우수 현장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건설공사는 첨단 공법인 TBM으로 도수터널을 성공적으로 관통해 왔다. 이 '새 물길'을 통해 하루 평균 54만톤의 물이 전남 동부권 곳곳에 전해질 것이다. 현장 직원들은 "우리 현장은 마라톤 경기의 반환점을 돌아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서 "차기 공사 수주에 훌륭한 퍼포먼스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공진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Interview

'성공 준공'을 향한 준비된 리더

연장소장 김형근 부장



1991년도 입사 후 도로 및 항만 공사 현장에서 다년간 근무해 온 김형근 부장은 그간의 공사 경험을 인정받아 올 1월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건설공사 현장의 소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2월 19일 도수터널 관통식을 이상일이 진행한 김소장은 남은 공진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무사히 관통식을 마치고, 공기에 맞춰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본사 유관부서의 협조와 현장 직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남은 공진도 철저히 준비해 예정된 공기 내에 반드시 준공하고, 향후 '댐 시설 안정화 건설공사' 수주에 본 현장이 시급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직원 여러분도 조금 더 힘내 주시길 바랍니다!"

발주처와의 소통은 내게 맡겨라!

공무팀장 윤인섭 부장대우



2016년 10월 현장에 부임해 지금까지 공무팀장을 맡고 있는 윤인섭 부장대우는 본사 3년, 군산 미장지구 택지 조성공사 현장 근무 1년을 제외하고는 K-water에서 발주한 현장에서 일해 'K-water통(通)'으로 불린다. 윤 팀장은 현장 전반 관리부터 발주처 소통까지 담당하며 애매로운 공사 진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

"토목사업본부가 현재 진행 중인 K-water 공사는 총 2개입니다. 우리 현장은 '대표 K-water 프로젝트'라는 각오로 공정·품질·안전·원가라는 4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주처로부터 '역시 현대건설'이라는 인정을 받아 우리 회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의 안팎을 챙긴 능력자

공사팀장 이준협 부장대우



현장 착공 당시 기존 도수터널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새로운 도수터널이 생기면 지하수 등 생활·농업 용수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2015년 11월 부임한 이준협 공사팀장은 민원 탓에 작업장 조성, 터널 장비 동원 등 준비 작업이 지연되자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공사 초기에는 민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공기 압박을 크게 받았습다. 밖에서는 민원인의 마음을 풀어주려 최선을 다했고, 안으로는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러 본사 R&D팀과 협력해 TBM 굴진율을 높였습니다. 현재 라이닝 타설과 가물막이 작업이 남아 있는데요. 도수터널 관통만 클 난이도가 있는 공사인 만큼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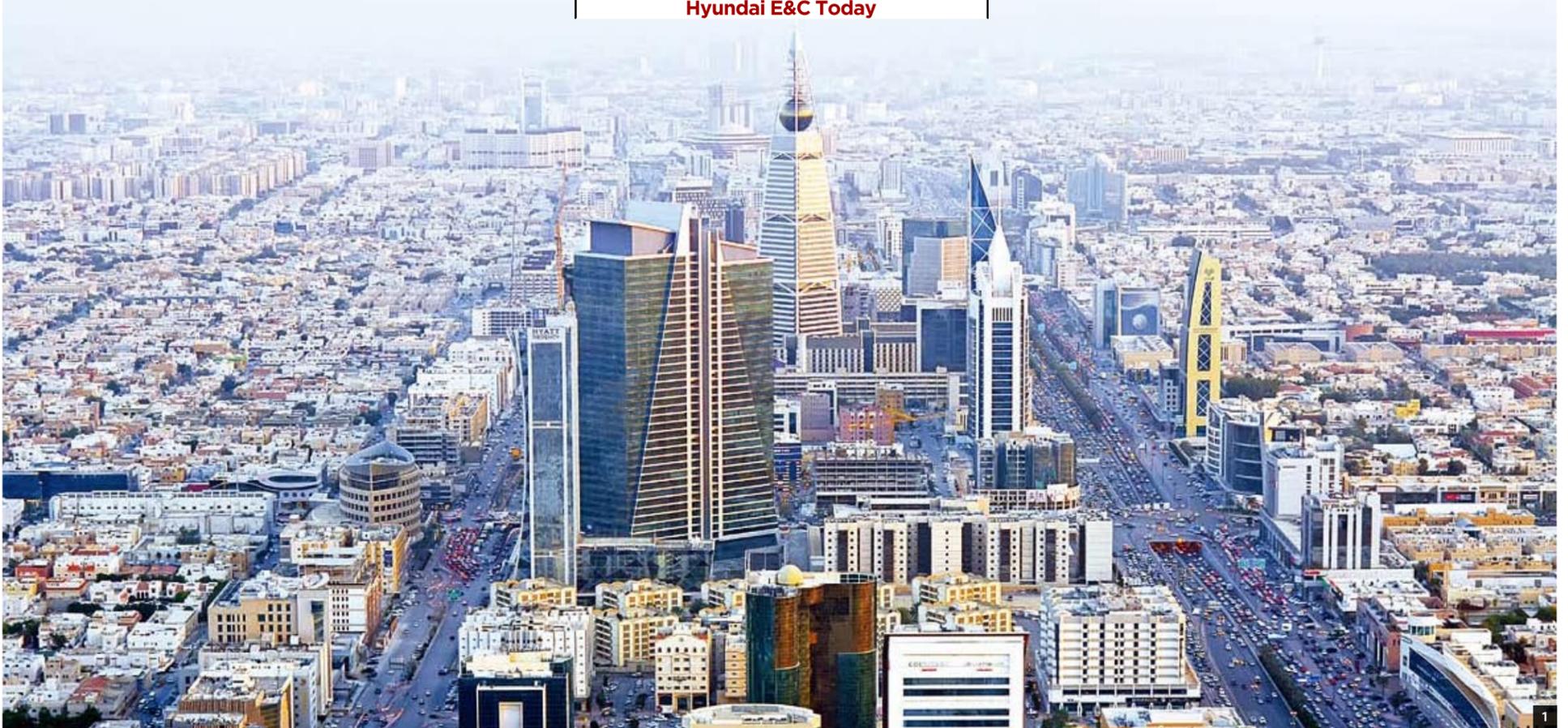
꼼꼼한 품질 관리자

품질실장 김보성 과장



김보성 품질실장은 매달 넷째 주 목요일 '품질 저하인원 평가 회의'를 진행한다. 우리 회사 공사담당자, 품질담당자와 각 역사의 소중 등이 참석하는 이 평가 회의는 통해 현장은 사전에 리스크를 체크하고 품질을 관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본사에서 진행한 '품질 시스템진단(QMC) 평가'에서 우수 현장으로 선정됐다.

"우리 현장은 지난해 현대건설 국내 토목 현장을 대표해 품질경영 심사를 받았습니다. 품질관리를 철저히 한 덕분에 2018년 10월 ISO9001 품질인증증을 받을 수 있었죠. 같은 해에는 발주처에서 주는 '안전우수현장'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안전은 회사의 현실, 품질은 회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품질 달성을 위해 모든 팀원과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Vision 2030으로 재도약 모색 중 **중동 최대 수주발 사우디 건설시장**

해외 건설시장 동향 ②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이자 두 번째 석유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비석유 산업 성장(non-oil growth)을 꿈꾸고 있는 것. 사우디는 민영화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까지 비석유 산업으로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수입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글=김윤중 해외건설협회 아·중동실장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은 2016년 4월 25일 사우디 정치·경제·사회 전반을 개혁하는 내용이 담긴 'Saudi Vision 2030(이하 '비전 2030')'을 발표했다. 비전 2030은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독점하는 업스트림(Upstream, 원유 생산 부문) 위주의 석유 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다각화와 민간 경제를 육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2018년 6월부터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고 극장과 해변에 여성 출입을 허용하는 등 보수적인 사우디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형 프로젝트 대거 발주... 파이낸싱이 수주 관건

사우디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분야는 석유 산업이다.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이자 세계 두 번째 석유 생산국인 만큼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Downstream, 원유 수송·정제·판매 등)까지 연계해 다양한 석유 화학 및 가스 제품을 생산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전략은 2016년 이전부터 추진돼 왔으나 비전 2030 이후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우디는 이를 통해 저

유가 충격을 흡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탈(脫)석유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진행되고 있다. 2017년 10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제1 왕위 계승자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투자 계획(FII-Future Investment Initiative)' 행사에서 미래형 주거·사업용 신도시 '네옴(NEOM)'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사우디 북서부에 서울의 44배 넓이인 2만6500㎢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네옴은 풍력과 태양광만으로 발전되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수년간 5000억 달러가 투입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당시 민간 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수주 지원 활동을 펼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 철도, 메트로 등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된다"며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한국이 선정돼 사우디와의 협력 의제를 발굴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년 전의 전망과 달리 이에 대한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기술력과 자금 조달 측면에서 글로벌 및 현지 건설사와 차별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전 2030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100억 달러



1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 전경. 2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마덴 알루미늄 제련소 현장. 3 주베일 산업항 공사는 1976년 당시 한국 1년 예산의 25%에 달하는 9억6000만 달러 규모였다.

규모의 홍해 관광단지 프로젝트는 수주 승산이 있다. 발전·물 관련 단일 패키지(EPC)로 발주되고 있고, 국내 건설사들의 관련 포트폴리오도 탄탄해 공사 참여가 가능해 보인다.

이 밖에 사우디는 가스 생산량 증대를 위한 100억 달러 규모의 마르잔 필드 프로젝트(Marjan Field Development)를 18개의 패키지로 나누어 발주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럽과 일본 등 글로벌 기업과 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250억 달러 규모의 안부 정유-석유화학 통합 콤플렉스 프로젝트(Yanbu Crude Oil-to-Chemical Complex) 등 455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설계 및 사업 타당성 단계에 있다.

발전 부문은 2025년까지 9만7500MW 발전 설비용량을 계획하고 있으나, 당분간 재래(Conventional) 발전소보다는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 발전소 위주로 발주될 전망이다. 교통 인프라는 민관합작 투자사업(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사업성 여부와 금융 조달 가능성이 수주 관건으로 작용한다. 담수·하수처리 부문은 민자 방식으로 추진되나 이 역시 국내 건설사는 금융 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 참여가 쉽지 않을 듯하다.

정부가 국내 건설사 적극 지원해야

2019년의 사우디는 저유가로 인한 어려움을 딛고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 유가가 상승세인 것도 호소식이다. 사우디의 건설시장은 2022년까지 연평균 5.4%의 성장이 예상된다. 발주 예정인 사업들도 4600억 달러에 달한다. 초대형 '국가 개조 프로젝트'에 글로벌 건설사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사우디 정부는 올해 초 '2020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변곡점을 보이는 발주 환경 속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건설사들에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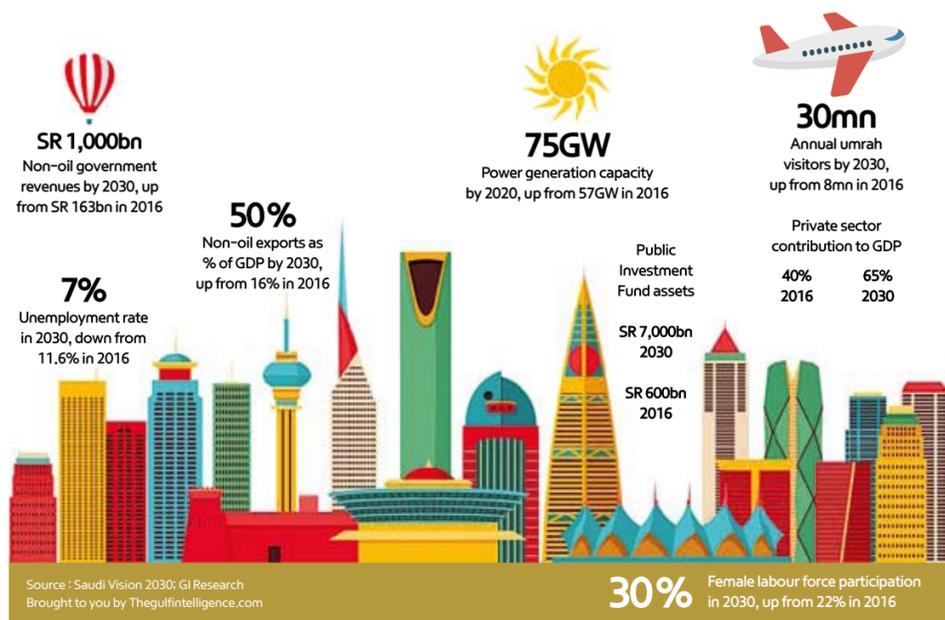
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과 투자(Funding)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저유가로 인한 사우디 정부의 예산 부족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좋지 못한 중국 건설사들이 중국 정부의 막대한 정책 자금을 등에 업고 사우디 건설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 2월 사우디와 중국은 35개 사업에 280억 달러를 투자하는 MOU를 체결하며 에너지·석유 화학·교통 등의 협력을 강화했다.

사우디는 비전 2030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민간 참여를 크게 원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EPC 외에 사업 기획과 개발, PM(Project Management), O&M(Operation&Maintenance) 등의 역량을 키워 사우디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할 때다. 우리나라 정부도 한국이 중국·일본·영국·프랑스와 함께 사우디의 5대 파트너인 점을 감안해 금융 및 외교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걸프협력회의(GCC-Gulf Cooperation Council)간 FTA 체결 등의 노력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 1위를 기록하는 중동 최대 수주발,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건설사들은 1973년 12월 사우디에 첫발을 내디딘 후 현재까지 1809건, 1416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치열한 사우디 건설시장에서 국내 건설사가 계속적인 승진보를 올리기를 기대해 본다.

VISION 2030 KINGDOM OF SAUDI ARABIA

출처: enidat.com



사실 지난 4년간 '류승룡 카드'는 이렇다할 존재감을 주지 못했다. 그가 출연한 작품마다, 희극이든 사극이든 평단의 반응은 시들했고 흥행도 기대에 못 미쳤다. 예기치 않은 설화(舌禍)로 미운 털이 박히기도 했다. 2015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흥행 부진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며 "관객이 영화의 미덕을 못 찾아낸 것 같다"고 말한 게 화근이었다.

서울 팔판동에서 만난 류승룡은 답답했고 때론 유쾌했다. "만나는 작품마다 말하려는 분명한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킹덤>의 다음 시즌 대본이 나왔다는 물음에 "그럼요, 6회까지 다 나왔지!"라고 후속작에도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영화 <7년의 밤> 제작발표회에서 보였던 경직된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권력 향한 허기진 욕망, 좀비로 표현

<극한직업>에서 류승룡이 연기한 '고상기 반장'은 <킹덤>의 악역 조학주와는 상반된 캐릭터다. 고상기는 영성하고 틈이 많은 인물이다. 극중에서 마약반을 이끄는 고 반장은 시종 코믹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다. 심지어 '마약 밀매 조직을 검거하고자 맞은편에 치킨집을 차리는' 설정 자체가 비현실적인 느낌마저 준다. 반면 조학주는 얼굴에 웃음기 한 점 없는 냉혈한이다. 살짝 찌푸러지는 미간을 통해서만 그의 마음을 가늠해볼 뿐이다. 권력을 탐해 좀비 사태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한국 극(劇)사에 새로운 악의 전범을 선보이는 배역이기도 하다. 전혀 다른 캐릭터를 어떻게 소화할 걸까?

"한마디로 '오버하지 말자'였어요. '웃기되, 웃기려고 하지 말자' '악역이되, 악역을 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조학주는 외견상 그리 극악한 구석이 별로 없어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제가 맡은 도승지 허균처럼 약간 인상을 찌푸리고 목소리를 까는 정도죠. 그러다가도 공식석상에서 대제학의 머리를 짓기긴한다가, 왕세자 앞에서 스스로를 '나'라고 칭한다든가. 그런 장면이 어찌 보면 낯설게 다가오는 캐릭터였어요."

그의 말처럼 조학주의 권력욕은 대제학(大提學)의 머리를 짓누르는 장면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자신보다 품계가 낮은 하나 대제학은 당대 학문의 우두머리로 대우받는 직책이다. 경멸하는 눈빛을 띤 채 조학주는 말한다. "유림은 전란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풀어서 말하면 유림과는 다른 자신의 대의(大義)를 관철하고자 권력을 욕망한다는 것이다. 생존욕구·인정욕구밖에 없는 철부지 악역들과 대비된다.

<킹덤>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체 제작한 드라마란 점에서 그렇다. 새로운 플랫폼을 선택하는 데 망설임은 없었는지 묻자 그는 "제안이 왔을 때 안 할 이유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배우들은 좋은 감독과 좋은 작가 그리고 좋은 캐릭터를 만나는 걸 가장 큰 바람으로 생각합니다. 김성훈 감독님과 김은희 작가님은 그야말로 동경의 대상이예요. 감독님은 고요함과 소란스러움, 단아함과 괴기스러움 같이 이질적인 이미지를 어색하지 않게 녹여내는 데 탁월하세요. 작가님은 어떤 심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지 잘 아는 분이시죠."

넷플릭스 드라마 촬영도 이전의 영화 촬영과 특별히 다를 바 없었다는 게 그의 소감이다. 다만 촬영 외적으로는 중요한 한 가지가 확연히 구분됐다고 싶었다. 제작진과 출연진에게도 흥행 성적이 끝까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말이다. 정서적인 배려 차원이란 것이다. 그는 "(넷플릭스의 방침에) 공감했고 작품을 선택할 때도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생방'이라고 하죠. 하루 찍고 내보내고 하는데, 결과가 잘 나오면 힘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맥이 빠진 상태로 촬영을 하게 되니 적잖은 심적 고충이 따르거든요."

결과 아닌 과정에 몰입했을 때 성장해

이번 두 작품을 준비하면서 기대치에 대한 부담은 없었는지 물었다. 그는 "결과는 관객의 몫이죠.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겁고 견고하게 만들어가려고 노력했어요"라며 차분하게 답했다. 이는 앞서 밝힌 '오버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환원된다. 그는 <극한직업>이 배우 류승룡에게 가져다 준 성취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공을 들이면서도 누구 하나 도드라지거나 처지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현장에서 만나 팀워크를 다지는 건 불가능해서 활

영화 <극한직업> 드라마 <킹덤> 흥행몰이 중 배우 류승룡

피플 인사이드

류승룡이 주연을 맡은 작품 두 편이 연달아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 1월 23일 개봉한 영화 <극한직업>은 개봉 3주 만에 관객 수 1300만 명을 돌파했다. 영화 개봉 이틀 뒤 오픈된 넷플릭스 플랫폼 드라마 <킹덤> 역시 많은 화제를 모았다. 연타석 흥행을 친 배우 류승룡과의 인터뷰.
글=문상덕 <월간중앙> 기자 / 사진=넷플릭스 제공



1 드라마 <킹덤>에서 영의정 조학주가 대제학(김종수 분)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 조학주의 대의(大義)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2 영화 <극한직업>은 2월 둘째 주를 맞아 관객 수 13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코미디 영화 흥행 1위에 올랐다.

영 전부터 모여 연극 보고, 맛집도 다니며 이 영화를 통해 얻고 싶은 것 등 서로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돼서 행복해요. 제게 주는 선물 같은 작품이예요."

그가 앞장서 리더십을 선보였단 이야기가 아니다. <극한직업>에 모인 배우들은 "저마다의 고민과 도전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도 관리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롯이 캐릭터에 몰입했고, 선규씨는 <범죄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스러운 모습으로 거듭났죠. 동휘씨도 평소의 코믹한 분위기와 결별하면서도 매력을 충분히 살렸고요. 우리 공명씨도 영화배우로 각인되는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다들 치열했지만 뒤러 하거나 이기적으로 굴지 않고 완벽하게 혼연일체가 됐죠."

<극한직업>은 2월 둘째 주 관객 수 1300만 명을 돌파했다. 전작 <7번방의 선물>을 뛰어넘은 건 물론, 역대 코미디 장르물 가운데 가장 높은 흥행 기록이다. 그가 보여주고 싶은 연기와 관객이 보고 싶은 연기가 마침내 접점을 찾은 셈이다.

지천명(知天命), 나이 드는 것 기대돼

류승룡은 2월 중순부터 <킹덤> 시즌2 촬영에 들어갔다. 현재 공개된 시즌1은 영의정 조학주가 좀비 사태의 복상을 막기 위해 경산도 전역을 봉쇄하는 것으로 끝난다. 세자 '이창'(주지훈 분)을 암살하기 위해 떠난 외아들 '조범일'(정석원 분)이 목이 잘린 채 돌아와 조학주의 권력욕은 이창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는 상태다.

김은희 작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시즌2는 세자 일행이 한양으로 올라오면서 겪는 사건과 역경이 그려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즌3도 내다보느냐'는 질문에는 "류승룡은 모르지만 조학주는 알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로 받았다.

류승룡은 올해 한국 나이로 50세를 맞았다. '50'이란 숫자가 그에게 초조함일까, 아니면 설렘일까.

"나이 들어가는 게 기대돼요. 몰랐던 것들이 많이 알게 되고 계속 배우가는 과정이니까요. 구체적인 지향점을 그리진 않아요. 어떤 작품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작품을 만드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내고, 시대를 담아내는 것. 그렇게 순간순간에 충실하고 싶어요."



패션 칼럼 학창 시절에는 교복으로, 회사에서는 정장으로 버텼다. 그런데 갑자기 시행된 '복장 자율화'라니! 매일 아침 옷장 앞에서 머뭇거리는 현대건설인들을 위해 준비했다. 캐주얼 패션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막막한 당신을 위한 스타일링 팁. 글=김동호 자유기고가 / 사진 및 도움말=삼성물산 패션, LF패션

근무 복장 자율화 시대가 왔다! 캐주얼 패션이 낯선 당신을 위한 스타일링

캐주얼 룩 입을 때, 이것만은 기억하자

1. 직접 입어보고 딱 맞는 사이즈를 고른다

정장은 물론이지만 캐주얼 룩도 사이즈가 중요하다. 주로 정장만 입다가 오랜만에 캐주얼 옷을 사려면 핏이 달라 맞지 않는 옷을 사기 쉽다. 또 같은 사이즈라도 옷마다,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요즘은 해외 브랜드도 많아져서 미국 사이즈, 유럽 사이즈 등 여러 가지 수치로 표기되기도 하고 슬림핏, 루즈핏 등 핏에 따라 사이즈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동안 잘못된 사이즈로 너무 크게 옷을 입어왔다면 이 기회에 직접 입어 보고 나에게 딱 맞는 사이즈를 고르는 것이 좋다.

2. 10년 전 바지, 목 늘어난 티셔츠는 No! 베이직 아이템부터 갖추자

오랜만에 캐주얼을 입으려고 보니 목 늘어난 티셔츠나 보풀 일어난 니트와 10년 전 유행했던 청바지가 전부라면? 정장이든 캐주얼이든 옷차림의 기본은 깔끔함이다. 10년 전 그 바지는 이제 유행도 뒀도 아니니 넣어두자. 당장 주저 말고 유행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베이직 아이템'을 갖추자. 신축성 있고 편안한 '슬랙스(Slacks)', 기본 중의 기본인 청바지와 면바지, 캐주얼 셔츠와 재킷, 사파리 재킷 또는 가죽 점퍼, 스니커즈, 로퍼 등이다.

3. 믹스매치와 '패션 테러'는 한끗 차이

'캐주얼라이징'의 바람은 현대건설에만 부는 것이 아니다. 최근 스트리트 패션이 대중화되면서 럭셔리 브랜드들까지 정장에 '어글리 슈즈'를 매치하는 등 자유분방한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패션에 자신 있는 사람의 자유분방한 시도는 세련돼 보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섞어 입다가는 패션 테러리스트가 되기 십상이다. 특히 여전히 눈에 띄는 청바지+정장 구두나 캐주얼 바지+정장 벨트의 조합은 제발 이제 그만! 이런 패션은 강동원도 소화하기 힘들다.

4. 포인트 컬러는 하나만, 컬러 매치가 관건이다

스타일링은 컬러만 잘 맞추면 반은 성공이다. LF패션 마에스트로의 김현진 디자인실장은 "상농하담(上濃下淡) 혹은 상담하농(上淡下濃)이 기본 연출법"이라고 말한다. 상의가 회색이면 하의는 검색, 하의가 회색이면 상의는 검색이 어울린다. 그러나 이러한 보색끼리의 콤비 차림은 시선이 분산돼 뚱뚱하고 키 작은 사람이 입으면 더 작아 보이기 쉽다. 가장 무난하고 깔끔한 컬러 매치는 톤 온 톤 연출이다. 키도 커 보인다. 상·하의 중 하나에 무늬가 있을 경우 그 무늬의 색상 중 하나를 선택, 안에 받쳐 입으면 된다. 또 상·하의가 무늬 없는 같은 색상 계열이라면 이너는 다소 튀는 무늬나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다.



1 연한색 바지를 입었다면 상의에 포인트 컬러를 매치한다. ©마에스트로
2 비슷한 컬러감의 의상을 배치하면 늘씬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갤럭시
3 사파리 재킷은 간절기 아이템으로 좋다. ©마에스트로
4 트렌치코트는 청바지부터 정장 차림에 잘 어울리는 기본 아우터다. ©로가디스

난이도 ★★★

가죽 점퍼 또는 사파리 재킷+티셔츠+청바지+스니커즈

캐주얼의 기본인 청바지와 스니커즈. 이 조합만으로도 이미 받은 성공이다. 그러나 역시 디테일에 따라 스타일은 확 달라진다. 밝은색의 청바지는 경쾌해 보여 20~30대에게 잘 어울린다. 40~50대라면 위상이 진하지 않은 중청이나 아예 진한 청바지가 좋다. 핏은 허벅지에 딱 붙지 않고 살짝 넉넉한 실루엣이 좋으며, 재킷에 매치하려면 아래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핏이 좋다. 기장은 역시 발목을 드러내는 9부를 추천한다. 가죽 점퍼는 양쪽으로 칼라가 있고 비스듬히 지퍼로 여미는 '라이더 재킷'이 가장 흔하다. 사파리 재킷은 기본적으로 앞면에 주머니 네 개와 허리 벨트가 있는 재킷을 말하는데, 요즘은 비슷한 디자인의 간절기 재킷을 통칭하기도 한다. 최근 3040들에게 인기 있는 '바버(Barbour)'의 재킷이 대표적이다.

난이도에 따라 입어 보는 캐주얼 룩

난이도 ★★★

재킷+셔츠 또는 티셔츠+면바지+로퍼

이너, 재킷, 바지 세 가지 중 두 가지 정도는 같은 계열 색상으로 맞추는 것이 세련돼 보인다. 연 그레이, 진 그레이, 네이비를 매치하는 식이다. 요즘엔 헤링본이나 글렌 체크 재킷도 많이 눈에 띄는데 이는 청바지와도 잘 어울린다. 재킷 안에 심플한 라운드넥 티셔츠를 입어 캐주얼하게 소화해도 좋다. 면바지, 즉 치노 팬츠는 보통 스키나-슬림-레귤러-루즈 핏으로 나뉜다. 체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슬림 핏 또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테이퍼드 핏이 요즘 트렌드에 가장 잘 맞는다. 처음 입을 땀 어색할 수 있으나 한번 슬림 핏을 입어 보면 레귤러 핏은 너무 헐렁해 나이 들어 보인다.

치노 팬츠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신발은 바로 로퍼다. 여러 가지 로퍼 중에서도 페니 로퍼는 발등을 가로지르는 가죽 띠가 있는 것이 특징으로, 치노 팬츠는 물론 청바지와 정장 바지에까지 두루두루 활용성이 높다.



난이도 ★★★★★

트렌치코트+슬랙스+후드 티셔츠+운동화

간절기에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멋 내기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바로 트렌치코트일 것이다. 버튼이 한 줄로 된 싱글이나 두 줄로 된 더블 모두 청바지부터 정장 차림에까지 입을 수 있는 만능 아이템이다. 트렌치코트에 후드 티셔츠의 후드를 꺼내 입으면 자유분방하고도 단정한 캐주얼 룩을 연출할 수 있다. 이때 바지는 면바지나 청바지뿐 아니라 슬랙스도 잘 어울린다. 슬랙스는 캐주얼하면서도 실용적인 바지를 통칭하는데, 정장과 비슷한 재질이지만 신축성이 있거나 약간 여유 있는 핏으로 입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금 더 트렌디해지고 싶다면 운동화 중에서도 일명 '어글리 슈즈'를 눈여겨보자. 말 그대로 못생기고 투박하게 생긴 농구화 스타일의 운동화들이 최근 인기다. 잘 신으면 스타일리시해지는 '인싸템'이지만 어설픈 신었다가는 정말 '어글리'해질 수 있으니 함께 입는 옷차림에 잘 매치해 보자.

계동산책 성수동의 유명 베이커리카페가 계동에 문을 열었다.

계동의 새로운 핫플레이스 cafe onion

현대건설 계동 본사에서 도보 1분, 한정식당 산 내리 터에 성수동의 유명 카페 어니언이 안국지점을 오픈했다. 본점 격인 '어니언 성수'는 1970년대 지어진 급속공장을 개조해 신구의 조화가 적절히 이뤄진 공간 재생의 성공 사례로 불린다. 이곳의 디자이너는 삼성전자, 젠틀몬스터, 나이키, BMW 등과의 이색 콜라베이션 작업으로 유명한 2인조 아티스트 그룹 '패브리카'. 어니언 안국 역시 이들의 감각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어니언 안국은 한옥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채움보다 비움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한옥의 큰 틀을 그대로 살리면서 백색 자갈, 흰 바닥 등으로 콘트라스트를 준 것이 인테리어의 특징. 그래서인지 전체 공간이 넓음에도 아늑함을 느낄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자리는 대청마루에 앉아 중정을 바라볼 수 있는 좌식

좌식으로, 해 질 무렵이면 노을을 감상할 수 있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다고 한다.

공간을 충분히 느꼈다면 이제 빵과 커피를 맛볼 차례다. 어니언 안국의 모든 베이커리는 매장에서 직접 만든다. 어니언의 대표 메뉴인 광도르와 앙버터는 매진되기 일췌. 안국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허니매생이·인절미·흑임자빵은 줄을 서야 구입할 수 있을 정도다.

커피는 한번에 많은 양을 내릴 수 있는 배치 브루잉(Batch Brewing) 방식으로 내린다. 이는 현대건설 등 계동의 바쁜 직장인을 겨냥한 것으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고품질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매장은 오전 11시부터 관광객으로 가득 찬다. 여유 있게 둘러보고 싶다면 출근시간 전 혹은 오전 휴식시간(오전 10시)에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글=박현희/사진=이슬기, 어니언제공



onion

주소 서울 중로구 계동길 5
영업시간 오전 7시~오후 9시(평일)
오전 9시~오후 9시(주말)
문의 070-7543-2123



1 어니언 안국의 모든 베이커리는 매장에서 직접 만든다. 2 집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원두도 판매한다. 3, 4 기존의 한옥을 개조해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한 어니언 안국 내·외관 전경.



현대 미술랭가이드



신정무 대리 김한울 대리 권진위 대리

과거 한식당이었던 사실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인테리어가 훌륭해요. 공간에 들어선 순간 회사 인근이란 생각이 안 듭니다. 유명 메뉴와 아닌 메뉴를 고루 먹어 봤는데, 의외로 유명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맛있네요. 커피보다 베이커리에 집중한 듯하고 맛은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이젤마 과장 이수영 대리 염지선 대리

패션프루츠 에이드 등 Non Coffee 메뉴도 맛있네요. 회사에서 가볍게 기분전환하고 싶을 때 와도 좋겠어요. 손님이 많아서 마치 관광객이 된 기분이 들거든요. 빵은 검정크런치와 인절미빵이 제일 입맛에 맞았어요. 쫄득하고 달달한 맛이 일품이네요! 커피는 신맛과 고소한 맛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문화 책갈피

햇살이 따사로운 봄날, 꽃놀이만큼 즐거운 일도 없다. 봄꽃은 개화한 후 일주일 정도가 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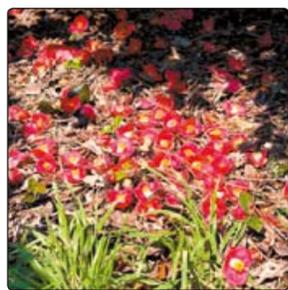
봄바람 불 때 떠나는 꽃 축제



영취산 진달래축제

기간 3월 29~31일
장소 전남 여수시 월내동 548번지 돌고개 행사장
요금 무료

영취산은 진달래 군락의 면적이 축구장 140개 넓이에 이르는, 우리나라 3대 진달래 군락지 중 하나다. 축제 기간에는 농악과 소원풍선 띄우기 등의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대표 프로그램인 산신제는 예로부터 영험하기로 이름난 제례를 복원한 것으로 볼거리가 풍부하다. 이른 봄, 산을 뒤덮은 진달래 군락의 화려함에 취하길 원한다면 '강추'한다.



충남 서천 동백꽃·주꾸미축제

기간 3월 16~31일
장소 충남 서천군 서면서인로 56 마량포구 일원
요금 성인 1000원, 어린이 300원 (낚시 등 체험비용 별도)

선홍빛 동백꽃과 서천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주꾸미가 어우러진 축제다. 자녀와 함께 참여하면 좋을 만한 행사로 어린이 주꾸미 낚시체험, 동백나무숲 주꾸미 찾기 이벤트 등 프로그램이 다채롭다. 예쁜 동백꽃과 함께 알이 꽉 차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봄철 별미 주꾸미 요리로 온 가족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진해군향제

기간 4월 1~10일
장소 창원로터리 등 경남 창원시 진해일대
요금 무료

올해 벚꽃 개화 시기는 평년보다 4~7일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에 우리나라 대표 벚꽃 축제인 진해군향제도 일정을 조금 당겨 다음달 1일부터 열린다. 100년 이상 된 왕벚나무들의 화려한 자태가 상춘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군악대와 의장대가 펼치는 '군악의장 페스티벌'도 주요 볼거리다. 벚꽃을 제대로 즐기길 원한다면 일정을 메모해 두자.



제주 유채꽃축제

기간 4월 4~7일
장소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41 조랑말체험공원
요금 무료

봄이 오면 제주도 전역을 노랗게 물들이는 유채꽃. 이 축제는 제주 유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고 한다. 제주의 푸른 바다, 길 옆의 검은 돌담, 노란 유채꽃 등 3색을 즐길 수 있다. 600년 목축문화가 살아 있는 가시리 마을의 감마장길을 걸으면 유채꽃 바다를 떠다니는 느낌이 든다. 제주 여행을 계획한다면 일정을 참고하자.



태안 세계튤립축제

기간 4월 13일~5월 12일
장소 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400 코리아플라워파크
요금 성인 1만2000원, 청소년 9000원

풍차와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에서는 매년 3~5월 세계 최대 규모의 봄꽃 축제가 열린다. 우리나라에서도 탐스러운 튤립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세계 5대 튤립축제로 꼽히는 태안 세계튤립축제에서다. 11만5700㎡의 면적에 200만 송이의 튤립이 꽃망울을 터뜨려 관광객을 맞는다. 화려한 색의 튤립은 봄을 더욱 설레게 할 것이다.



힐스테이트



라이프스타일 리더, 힐스테이트 브랜드 리뉴얼로 NO.1 브랜드 위상 강화

- 영문 'Hillstate'를 국문 '힐스테이트'로 단일화·크기 150% 확대
- 로고 컬러를 '와인 컬러' 단색으로 운영
- 아파트 외벽에 '현대건설 로고' 같이 표기

우리 회사가 최근 '힐스테이트'의 BI(Brand Identity)를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브랜드 리뉴얼은 디자인뿐 아니라 브랜드 콘셉트까지 구체적으로 다듬어 힐스테이트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우리 회사는 인지도 제고를 통해 국내 No.1 아파트 브랜드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힐스테이트 디자인 리뉴얼은 기존 국·영문 혼용으로 쓰이고 있는 힐스테이트 로고를 한글로 통일하고, 150% 확대해 브랜드 식별이 쉽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를 꾀한 부분은 아파트 단지 외벽이다. 기존 외벽에 'Hillstate' 영문으로 표기하던 브랜드명을 국문 '힐스테이트'로 바꾸고 CI와 함께 배치해 현대건설 고유의 품질경영과 신뢰성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 밖에 브랜드 정교화 작업을 통해 브랜드 콘셉트를 '라이프스타일 리더'로 개편했다. 이는 우리 회사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리더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은 '세련된 삶(Stylish Life)' '다채로운 삶(Various Life)' '편안한 삶(Comfortable Life)'이라는 3가지 고객 제공 가치로 정의된다. 새로운 브랜드 철학이 담긴 상품은 하반기 분양에 나서는 신규 단지 및 입주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브랜드 담당자는 "주택시장 1위 브랜드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 앞으로도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주거공간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Stylish Life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남다른 시각으로 세련된 삶의 공간 창조

Various Life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채로운 삶의 경험 제공

Comfortable Life

최첨단 미래 주거 기술로 차원이 다른 편안한 삶 제공

2006년

힐스테이트 로고 변천사

과거 심벌이 강조되었던 시그니처 형식에서 벗어나 국문 로고 타입을 강조하는 시그니처로 브랜드 시인성 및 인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2012년



2019년

